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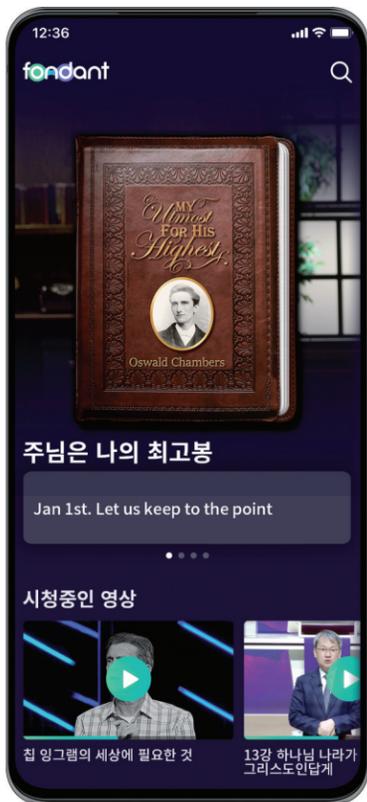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2월 21일(주일) 제1332호

##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 2월 15일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 출시 검증된 복음콘텐츠 한곳에 ... 성도 보호와 신앙 성장 목적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온누리교회, CGNTV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 화면.

CGNTV가 지난 2월 15일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을 정식 출시했다. 퐁당은 국내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이다. OTT(Over The 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는 기존 통신 및 방송사업자 외에 제3사업자들이 인터넷으로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TV, PC, 스마트폰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검증된 복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단, 광고, 유해 콘텐츠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콘텐츠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균형 있는 신앙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CGNTV의 다양한 콘텐츠뿐만 아니라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자체제작), 타교회 양질의 콘텐츠를 한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신앙 성장영역' 점검을 통해서 사용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이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해준다. 교회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온라인 예배 라이브 기능, 교회 양육 커리큘럼 및 학적관리(LMS) 등을 제공해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예배와 양육을 효과적으로 이어가도록 돕는다.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는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이단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위험한 현 시대의 영적 보호막”이라고 했고,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는 “좋은 기독교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서 많은 이들의 다양한 요구를 채워주는 영적 대항 도서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난주일 예배에서 성도들에게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적합한 기독교 플랫폼”이라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주 찾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퐁당(Fondant)은 ‘흘러넘치다, 빠져들다’라는 뜻의 프랑스어로, 물의 파장을 가리키는 우리말 ‘퐁당’과 어울려 온 세상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기독교 OTT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의: 02-792-069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선교헌금 신규작성 3,204명, 연 15억 증가

지난 1월 30~31일, 2월 6~7일 실시한 2021 선교헌금작성에 온누리교회 성도 3,204명이 동참했다. 신규 선교헌금작성액은 약 15억 원이다. 2000선교본부는 성도들이 귀하게 봉헌한 헌금을 교회 개척, 코로나19 긴급구호, 국내외 이주민 난민사역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00선교본부는 “어려운 시기에도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2021 선교헌금작성 행사는 끝났지만, 선교헌금과 선교헌금작성을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계속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활용해서 선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재능기부자와 중보기도자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3215-3616

## 강동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강동 온누리교회가 2월 21일(주일) 창립 13주년을 맞이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지난 2008년 2월 24일 캠퍼스 복음화를 비전으로 품고 '건대 온누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 10월 3일 강동구 천호동으로 자리를 이전하면서 '강동 온누리교회'로 이름을 바꿨다.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준호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담임)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창립 13주년이 되기까지 은혜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면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남양주 온누리교회 새 유튜브 채널 개설

남양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이 해킹을 당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새로운 남양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은 '온누리교회 남양주 캠퍼스'를 검색하면 구독할 수 있다. 기존 유튜브 채널은 접속할 수 없다.

### < 당회 >

일시: 2월 27일(토) 오전6시  
장소: 양재 기쁨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 < 제직회 >

일시: 2월 28일 2부 예배 후  
장소: 양재 사랑홀  
대상: 모든 제직  
주요안건: 평남노회 청원

## 차세대 2021 PASSION “ALIVE”

### 2월 27일 오후 1시 Zoom, 유튜브

차세대 2021 PASSION “ALIVE”가 열린다.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유튜브, 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파워웨이브 학생과 교사다.

이번 차세대 PASSION “ALIVE”에서는 Zoom 화상 세미나와 유튜브 온라인 집회가 이어진다. Zoom 화상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이 비

전을 세워가도록 돕는다. 유튜브 온라인 저녁 집회는 파워스테이션의 찬양인도,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영상 상영,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의 메시지 등이 진행된다.

이번 PASSION “ALIVE”에서는 오랜 시간 함께 하지 못한 차세대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PASSION “ALIVE” 프로그램 중에서 ‘생존신고 미션’



을 수행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 “생명나눔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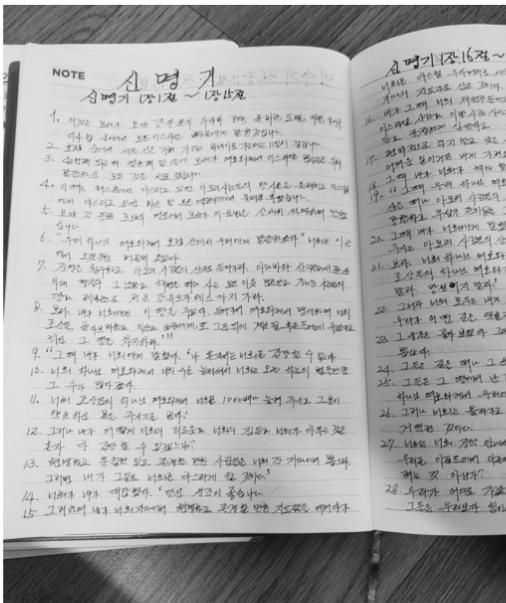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기쁨

## 90일의 기적이 가져온 또 하나의 기적



손춘옥 성도(부천 한사랑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성경일독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왼쪽), 허은진 순장(중종로공동체)은 무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단체채팅방을 섬기며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다(오른쪽).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아니 더 뜨거워졌다. 90일의 기적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만끽하고 있다는 간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탈북민과 무공동체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탈북민공동체 지체들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 그런지 더 은혜롭다”고 간증하고 있고, 무공동체 지체들은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다.

탈북민들을 위한 부천 한사랑공동체(김혜경 목사 담당)도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성장하고 있다. 개인의 신앙 성장은 기본이고, 남한 성도들과 탈북민 성도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

손춘옥 성도(부천 한사랑공동체)는 생애 첫 번째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 모두가 힘든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90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새벽기도회를 해 본 적이 없고, 그 시간이면 아침식사를 준비할 시간인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고 확신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춘옥 성도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있다. 그 비결은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 일람음이다.

“새벽에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 알람음이 울리는데 그 소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울립니다. 공동체 성도들이 다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외침으로 들리거든요.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

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그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 즐겁습니다.”

요즘 손춘옥 성도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성경필사를 하면서 신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눈을 뜨면 얼른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새벽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성경일독을 하고요. 그리고는 성경필사를 합니다. 지난해 공동체 성경필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90일의 기적은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금숙 스태프(부천 희락공동체, 한사랑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하면서 탈북민 성도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신앙으로 하나 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민 지체들의 신앙 성장과 삶의 변화를 보는 은혜는 덤이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열심히 참가하는 탈북민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을 꾸준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이 끝나면 90일 더 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 허은진 순장의 소망대로

허은진 순장(중종로공동체)은 올해부터 공동체 새가족 사역자로 섬기고 있다. 허은진 순장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단체채팅방 두 개를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순채팅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에 소속이 안 된 무공동체

지체들을 위한 단체채팅방이다. 요즘 허은진 순장은 무공동체 지체들이 고백하는 한 줄 소감을 읽으면서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사역을 해 본 적도 없는 무공동체 성도들이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잘 알고 친숙한 순원들과 달리 교회나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라 90일의 기적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실지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은혜로운 한 줄 소감을 날마다 나눠주시는데 정말 큰 감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깊고 뜨거운 고백을 읽으면서 은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은 어떤 고백들을 나눠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고요. 그분들 덕분에 오히려 제가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허은진 순장은 무공동체 지체들이 90일의 기적이 끝나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무공동체 성도들이 교회와 공동체 생활을 진속하게 여길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도 하고 있다.

“공동체 소속이 안 된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세부적인 교회 소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별도로 온누리신문 파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CGNTV에서 출시한 ‘풍당’ 앱 사용법과 기도제목, 예배당 예배 예약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고요. 무공동체 지체들이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 활동인 셈입니다. 90일의 기적의 은혜가 무공동체 지체들이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공동체 지체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공동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끼고,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무공동체 지체들이 있다. A자매는 공동체에 소속되면 필요 이상으로 간섭을 받을 것 같아 피해왔는데 90일의 기적 단체채팅방에서 성도들과 의사소통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기쁨에 푹 빠졌다. 현재 A자매는 공동체 소속을 위해서 새가족 과정을 밟고 있다. 허은진 순장의 소망대로 90일의 기적이 가져온 또 하나의 기적이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2월 7일~2월 16일)

·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 조재영 성도(일산공동체)

· 인간은 악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강해지면 왜 교만해져서 죄를 범할까요. 항상 겸손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 심재혁 성도(강촌공동체)

· 역사 안에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라는 하나님의 관점을 깊이 새깁니다. / 서정인 성도(무공동체)

· 동방의 이스라엘 처 복된 포로를 해방시킬 이 시대의 고레스 왕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에스라와 같은 학사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소서. / 김도환 성도(서초C공동체)

· 하만과 같은 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하던 날이 복된 날로 변화된 부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의 장애물들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의 부림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박주은 성도(경기A공동체)

·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길,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 김영희 성도(강남D공동체)

· 읊가를 읽는 내내 수많은 질문들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 오명근 형제(대전 온누리교회)

· 내가 실패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믿게 하셨다. 그 믿음이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할지라도 용납하며 격려해주시다. / 이규성 권사(관악권천공동체)

·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원인을 따지며 묻는 것이 교만임을 깨닫습니다. / 오명순 권사(이수공동체)

· 저의 위로의 말과 권면의 말을 돌아봅니다. 어썰튼 위로가 상처의 말이 되고, 공감하지 못한 위로가 예수님을 등지게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권면할 수 있게 하옵소서. / 이상준 집사(강남D공동체)

· 누구든지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은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 김철욱 성도(경기A공동체)

· 우리 주변의 불경한 이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나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서 멀어시는 하나님을 목상합니다. 우리를 주의 지혜로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박진용 성도(강남E공동체)

· 여호와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평생 고백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 홍정희 집사(여의도공동체)

##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 성도의 본분 다하고, 작은 생명 살리기 위하여!

## 김태형 순장과 김형진 성도의 30년 만의 헌혈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 30여 년 만에 헌혈의 집을 찾은 김태형 순장과(부천 믿음공동체, 왼쪽) 김형진 성도(가정사역공동체, 오른쪽).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도 벌써 50여 일이 지났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가족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난생처음 용기를 내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고 있다. 2월 18일 기준 606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헌혈의 집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 20여 년 만에 남편과 함께 두 번째 헌혈을 한 성도도 있고, 10년 만에 회사 직원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도 있다. 그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김태형 순장(부천 믿음공동체)은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35년 만에, 김형진 성도(가정사역공동체)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30년 만에 헌혈을 했다.

김태형 순장은 고등학교 시절 헌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 그때는 헌혈을 하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김태형 순장은 군입대 전에 다시 헌혈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가까스로 첫 헌혈을 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나 다시 한번 헌혈의 집을 찾았다.

“고등학생 때 학교로 온 헌혈 버스에서 헌혈을 하려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 나이였는데 혈압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더라고요. 헌혈 버스에 타지 않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입대 전에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혈압이 기준치에 들어서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저의 첫 헌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헌혈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내다가 35년 만에 헌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김태형 순장이 35년 만에 헌혈의 집을 찾은

이유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다. 세이레 새벽기도회에서 들었던 설교와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간증, 솔선수범하는 교회 리더십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다.

“새벽기도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헌혈 캠페인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미 많은 성도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크리스천으로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헌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 때문에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훈 담임목사님과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혈을 할 수 없었다. 또 혈압이 문제였다. 아쉽고 속상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헌혈을 하려고 2주 동안 최선을 다해 건강관리를 했다. 재도전 끝에 헌혈할 수 있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기도 하고 요즘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헌혈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며 2주 동안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혈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날이 조금 풀리자마자 헌혈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다행히 기준치에 충족되어 헌혈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형진 성도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혈의

집을 방문했다. 섬기고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온 긴급헌혈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작은 생명을 살리고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90일의 기적이 시작되고 새벽기도회와 성경통독에 참여하면서 생명나눔의 기적에도 동참할지 말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섬기고 있는 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에서 긴급헌혈요청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모세포종혈액암을 앓고 있는 6살 아이의 치료를 위해 AB형의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꼭 헌혈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래인 제 아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작은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헌혈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단체 헌혈 이후 꼬박 30년 만이었다. 헌혈의 집에 가긴 했는데 웬지 모르게 두렵고 불안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헌혈버스가 와서 친구들과 헌혈한 이후 30년 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헌혈의 집에 들어갔더니 긴장이 되더군요. 저는 혈소판 헌혈을 했는데 전혈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혈소판 헌혈 방식도 무섭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묵상했더니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헌혈을 마치고 나서는 두려웠던 마음이 온데간데없고 기쁨만 남았다. 아내와 아들들에게 칭찬도 듬뿍 받았다. 김형진 성도가 아직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지 못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헌혈의 집에 가는 길, 헌혈하기 전, 헌혈을 하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헌혈을 마치고 나서 두려운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하길 잘 했다!’라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아내도 칭찬을 해주고, 두 아들이 마치 영웅을 만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더군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큰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의 혈액 정보

2021년 2월 19일 기준 / 단위: Unit

구분	1일 소요량	현재 혈액보유량	보유상태
합계	4,945	17,703	3.6일분
O형	1,399	3,998	2.9일분
A형	1,685	5,396	3.2일분
B형	1,311	5,884	4.5일분
AB형	550	2,425	4.4일분

\* 적정혈액보유량은 일평균 5일분 이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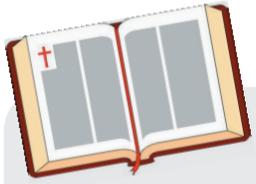
\* 자료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 “헌혈의 장점이 있다고요?”

“헌혈의 장점이 참 많습니다. 첫째, 헌혈을 통해 간단한 건강검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헌혈하기 전 간단한 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때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HLTV 감염 여부, 매독 감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혈구 수치, 간 수치, 총 단백 검사 등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헌혈하면 우리 몸에 있던 오래된 피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피를 생성하게 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혈관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피의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장 발작, 뇌졸중과 같은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철분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우리 몸은 철분이 부족해도 빈혈이라는 문제가 생기지만 철분이 과도하게 많아도 심장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헌혈을 한 번 할 때마다 약 225~250mg의 철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철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혈을 통해 철분 수치를 균형 있게 조절하면 심장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바울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난 믿음이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혹독한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바라보면 참된 믿음의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죽음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평안한 마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해석하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출생보다 확실합니다. 태어날 수 있었던 많은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기도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출생보다 확실합니다. 사람은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셋째,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는 것은 문체나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천국을 현실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천국은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 존

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종교적인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수록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자신만의 천국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삽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사도들, 노예제도를 철폐시킨 영국의 복음전도사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적지도자들, 조선 땅에 와서 구습과 악습을 철폐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었던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천국에 고정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 뜻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죽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 두려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 아래서 해석하고,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젠가 다가오게 될 죽음을 복음의 빛, 믿음의 빛, 죽음 이후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일시적인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바울은 죽음을 세 가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집'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이란 일시적인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1절).

바울의 직업은 장막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부업입니다. 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부업으로 장막을 만들어 팔았던 것은 당시 교회가 형성이 되지 않고, 현금으로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활비와 사역비를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을 통해서 조달했습니다. 바울이 취급한 장막은 보통 사람들이 가정에서 취급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마다 설치하는 초막, 로마 군인들의 개인 텐트 정도일 것입니다.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는 간편한 구조였을 것입니다. 장막을 철수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는 것을 우리의 육체에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무너지는 데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우리 몸이 무너지는 데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존재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몸은 언젠가 무너질 연약한 장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입게 될 부활의 몸이 들어갈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몸이 주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활의 믿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덧입는

두 번째는 '옷'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덧입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 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2-4a).

‘덧입는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서 존재의 새로움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옛것이 되어 무너지지만,

새로운 몸을 덧입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2-4절에서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에 대하여 해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라는 표현이 나오고, 3절에서는 ‘벗을 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4절에서는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죽음 이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기간을 ‘중간 상태’라 하는데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앞의 세 가지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네 번째가 정답입니다. 첫 번째 주장은 “죽음은 영혼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죽음에 들어가면 잠자는 상태, 무의식이나 망각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영혼의 수면 상태, 망각, 무의식 상태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단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연옥으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연옥에서 영혼이 불완전한 사람들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려면 살아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근거로 중세 시대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즉각적으로 부활한다는 주장입니다. 죽는 즉시 육신의 몸에서 분리되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해석하는 네 번째 해석이 올바릅니다. 우리가 죽은 직후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상태, 망각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꼭 육체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회복하기까지 우리는 영혼의 상태로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육체는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활의 몸을 덧입을 때까지 중간상태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 온전한 부활에 이르기까지 몸의 온전한 영광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거하는 상태가 중간 상태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 사회학, 결혼과 가정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에서 가정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최초의 사회 기관(창 2:24)이며, 모든 사회 기관의 기본이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기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쉐마, 신 6:4-9). 이스라엘의 가정은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어 받는 단위이다(수 13:15).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를 가르친다(창 2:24, 딤후 3:2, 12, 딤후 1:6). 부부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여야 한다(엡 5:23). 창세기 16장의 사라와 하갈, 창세기 30장의 라헬과 레아의 갈등을 통해 성경은 일부다처제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보여준다. 이처럼 기독교는 결혼과 가정 제도에 명확히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모슬렘은 기본적으로 남녀불평등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일부다처제가 허용되고, 남성에게는 외도가 허락된다. 아내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고 이혼할 수도 있는데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간음의 경우에도 여성에게 훨씬 심한 벌이 적용된다. 따라서 모슬렘 가정은 가부장적이며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알라보

다 무함마드의 전통에 더 의존하는 모슬렘에서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억압적인 문화를 형성한다.

인본주의에서는 기독교의 이성애적 일부일처 제도를 실패한 사회 제도로 규정하는데,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페미니스트 운동에서는 전통적 가정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도록 만든 사회 구조라고 주장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역할과 남편의 하인과 가정부로 노동시장의 희생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 결혼 대신 개방결혼, 3인 결혼, 결혼조합, 집단결혼, 배우자 교환, 동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성적 결합의 결과인 자녀에 대해서는 피임, 낙태와 함께 국가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공공양육제도 등을 제안한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 전통적 가족제도는 부르주아들이 프롤레타리아를 지배하기 위한 제도로 폄하된다. 가족은 노동자들에게 혁명의식이 결여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며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의 사회에 대해 가정이 사회의 산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학교가 가정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아이들의 양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맡아야 할 공적인 일이 될 거라는 것이다. 자유로운 성관계가 증가하면서 간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적자인지 서자인지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뉴에이지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미개한 기관이다. 뉴에이지에서는 어떤 실패이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개한 기관이지만 깨달음을 위해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성적 자유는 진보의 일부로서 성행위는 육적, 영적으로 스스로를 탐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적 취향을 선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상호 간의 육적, 영적 대화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에이지에서 성행위와 결혼은 큰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로서 선택의 판단 밖의 일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도 아닌 것이다.

포스트모던은 결혼을 가장 큰 악으로 여긴다. 전통적인 사랑, 성, 결혼의 개념을 혐오한다. 포스트모던은 모든 방면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여자동성애, 남자동성애, 양성애, 성정체성 혼란, 성정체성 변경 등 자신의 성정체성 선택에도 무한한 자유를 부여한다. 또 관계의 형태에도 결혼을 포함하여 생식기적 관계, 동거, 공동생활 등의 자유롭고 다양한 성적 실험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세계관들은 전통적인 성-결혼-가정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의 원인이 기독교 도덕률에 의한 성적 억압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필요성의 주장과 루카치와 그람

시에 의해 기독교 문화를 뒤엎어 버릴 문화 혁명으로써의 성 해방의 이념이 세워졌다. 그 이념에 따라 칸제이는 거짓 통계자료로 도배된 <칸제이 보고서>를 생산하고, 68운동을 통해 모든 억제하던 성적 규제를 타파하지는 일들이 시작되었고 실행되고 있다.

조지 길더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결혼과 가정의 상태는 사회 전체의 상태를 나타낸다. 결국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번성-충만-정복-다스림의 생육문화 명령을 부여하셨다. 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 19:5-6)는 명령을 통해 친밀하고 안정적인 남녀 한 쌍의 부부관계 속에 흔들림 없는 가정을 명령하셨다. 우리는 성적 타락을 통해 결혼제도와 가정을 약화하려는 다른 세속 세계관들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낙태죄 삭제 등의 입법을 통해 조직적으로 가정을 와해시키려는 세력으로부터 눈을 부릅뜨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시대와 문화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묵상: 사회가 변함에 따라 성-결혼-가정에 대한 기준이 변해야 하는가?**

##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성정체성 상담

# 친구 간의 다정함과 친밀함은 '우정'

“저는 여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요새 자꾸 같은 반 친구가 좋아져서 고민입니다. 자꾸 친구가 생각나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면 질투가 납니다. 여고라서 그런지 친구들과 가벼운 스킨십이 많은 편인데 그 친구가 팔짱을 끼거나 장난을 칠 때면 심장이 쿵쿵거리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 수용, 확립하는 시기다. 이 시기를 순조롭게 잘 보내면 심리적인 갈등 없이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청소년 시기에는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들이다. 또한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들이 더욱 발달하는 시기이다.

일부 청소년은 친구 관계에서 새롭게 느끼

는 정서적, 감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성에 대한 당황스러운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자신 안에 일어나는 당황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래선 안 돼!’, ‘이건 죄야!’ 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간혹 다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호의를 보이거나 기대 이상의 배려를 할 때 ‘심장이 쿵’ 하는 감정적 경험을 할 수 있다. 때때로 감정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서 날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고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면 좋겠다. ‘나는 이 친구의 어떤 점들에서 좋은 느낌을 받는 것일까?’ 라는 질문으로 자신을 탐색해 보는 작업을 해보자.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죄를 지었다고 결론 내지 말고 천천히 탐색해 보자.

청소년 시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남녀의 추정치는 약 4~8% 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한 시적인 갈등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경우라면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

해서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앙을 가진 청소년이 자신의 심리적인 혼란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과 그 마음을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돌봐주는 신앙공동체의 분위기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성과의 사이에서 경험하는 다정함이나 친밀함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성 간의 사랑이 발전해서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 그럼 동성 간의 다정함, 친밀함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적절한 단어는 ‘우정’이다. 우정은 이성 간의 사랑처럼 뜨겁거나 열정적이지 않을지라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감정적인 떨림을 통해서 우정을 키워가는 기회로 삼아보는 것이 좋겠다.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우정이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심과 확정이 필요하다. 같은 반 친구가 좋아지고, 다른 친구와 가까운 것을 보면 질투가 나고, 자주 생각도 나는 것은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

어날 수 있는 경험이다.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보기를 바란다. 그 감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을 충분히 찾아보기를 바란다. 그러나 감정적인 경험이 성적 스킨십과 육체적인 접촉의 범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정체성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관계나 상관없이 ‘성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출 20:14).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경험을 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고 결론 내리거나 심하게 자책하지 않기를 바란다. 친구 간의 다정함과 친밀함은 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정의 범주에서 감정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 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 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로 신앙 성장 돕는다!

## 서산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의 큐티백신세미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로 신앙 성장을 돕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 그 주인공은 서산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다. 서산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연합해서 온라인 '큐티백신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효과가 엄청나다. 특히 한 달 동안 이어진 큐티백신세미나 후속 소그룹 나눔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과 봄청년부 청년들이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돕는 촉매제가 되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산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온라인 큐티백신세미나로 거듭나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어떻게 도울까?’

이 시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똑같은 고민이다. 서산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를 섬기고 있는 박노을 전도사도 마찬가지였다.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날마다 고심했다.

“지난해부터 청소년들 스스로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영상 예배와 예배당 예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상황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요. 코로나19 이 전처럼 모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큰일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줌(Zoom)을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열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서산 은누리교회 봄청년부도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 관리를 도울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왜냐

하면 비대면 신앙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앙의 침체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민영 자매(봄청년부)도 그랬다. 비대면 신앙생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체감했다.

“교회 사역이나 행사들이 전부 취소되고 송구영신예배마저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게 되면서 많이 낙담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동역자들과의 교제도 갈급했구요...”

### 순수한 신앙과 뜨거운 신앙이 만들어낸 '시너지효과'

서산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손을 맞잡았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 성장과 영성 관리를 돕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큐티백신세미나는 지난 1월 27일과 28일에 온라인으로 막 올랐다. 큐티백신세미나는 말

그대로 큐티를 독려하고 권장하는 세미나다. 하지만 큐티세미나의 백미는 파워웨이브 청소년들과 봄청년부 청년들의 연합이다.

큐티백신세미나에서는 강의시간을 30분으로 정했다. 짧고 굵게 강의하고, 나머지 시간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교제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큐티 백신'을 주제로 4행시 짓기 이벤트 등을 실시했다.

원래는 자매(봄청년부)는 파워웨이브 청소년들의 순수하고 맑은 신앙과 믿음에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이제 막 중학생이 된 학생들의 순수하고 맑은 신앙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말고도 청소년들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에 큰 감동을 받은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서산 은누리교회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는 큐티백신세미나가 끝나고 1달 동안 소그룹 큐티나눔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파워

웨이브 청소년들의 순수한 신앙과 봄청년부 청년들의 뜨거운 신앙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호재 학생(파워웨이브, 고3)은 소그룹 큐티나눔방에 참여하면서 큐티가 습관이 되었다.

“파워웨이브 청소년들과 봄청년부 형 누나들이 조별 큐티나눔방에서 날마다 함께 큐티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큐티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어요. 형 누나들에게 다양한 나눔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김다윗 학생(파워웨이브, 중1)은 형 누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더 깊은 묵상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큐티백신세미나에서 만난 형 누나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더 깊은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종종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형 누나들 덕분에 이해가 잘 되고요.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사역칼럼

## 청년들이 큐티를 하고,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오진수 목사 (서산 봄청년부, 차세대 담당)

코로나19로 파워웨이브 학생들과 봄청년부는 청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학생들은 손꼽아 기다리던 캠프가 열리지 않아서 아쉬움이 많았고, 청년들은 열심히 계획하며 기대하던 아웃리치와 사역들이 연달아 취소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생력이라고 생각했다. 은누리교회에는 큐티가 있고 큐티만큼 좋은 도구가 없다. 전도사님들과 의논 끝에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함께 큐티백신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학생들에

게는 캠프, 청년들에게는 아웃리치를 인리치로 전환하여 사역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청년들이 학생들을 섬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세미나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두 부서의 연합은 파워웨이브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봄청년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했다.

처음에는 적극적인 홍보와 권면에도 학생들과 청년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 큐티세미나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왔던 모양이다. 그래서 무조건 짧으면서 재미있는 세미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의를 듣고 나면 '나도 큐티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강의에서 꼭 다루야 하는 내용을 30분 안에 압축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학생들과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다. 또한 큐티백신세미나가 단순히

듣고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고 4행시 짓기, 온라인 레크리에이션 같은 참여형 이벤트와 큐티 소그룹 나눔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많은 지체들이 발표를 하고, 화면을 전환하는 과정이 복잡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려와 달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이미 온라인에 익숙해 있었다. 이벤트에 참여하고,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매끄러웠다. 30분으로 압축한 강의도 반응이 꽤 좋았다.

파워웨이브와 봄청년부가 함께하는 큐티백신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쓴 것은 소그룹 나눔이었다. 강의를 들어도 정작 큐티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큐티백신세미나가 끝난 뒤에 한 달 동안 소그룹 큐티나눔방을 유지하기로 했다. 돌아오는 2월 28일이면 딱 한 달인데 소그룹 큐티나눔방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 일찍 할 걸 너무

늦게 했다는 아쉬움이 들 정도다. 청년들이 꾸준히 큐티를 하고,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른 모습을 보았다. 서산 은누리교회 봄청년부는 중단됐던 보육원 사역을 온라인 멘토링을 기점으로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 보육원 아이들과 청년들을 4인 1조로 묶어서 꾸준히 멘토링 할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대면 모임과 아웃리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워웨이브를 비롯한 차세대는 큐티를 중심으로 온라인 사역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사역은 참여율이 높고, 연합 사역이 용이하며, 한정된 재정으로도 다수의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산 은누리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지 않을 것이다. 사역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 아름다운 사역의 형태로 나타날 것을 믿는다.

전문가 기고

# 사회적 리더십 회복과 하나님 나라 구현!

##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제안



이장로 장로  
(여의도공동체, 고려대  
명예교수, 한국리더십  
학교장)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써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예배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되었고, 성도

들은 가정이나 어디서든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성도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설교자(담임목사)와 소수 예배 진행 인원들만 예배당에 참석해서 방송용 예배를 촬영하고, 이를 기독교TV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고 눈물이 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지만 이마저도 인원 제한이 있다. 하루속히 성도들이 코로나19 이전처럼 아무 제약 없이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회에 대해 새삼스럽게 생각해본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경영학에서 어느 조직의 존재 목적을 흔히 미션(Mission)이라고 한다. 교회에서는 '미션'이라는 용어가 존재 목적이라는 의미와 함께 '선교'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 '교회의 존재목적=선교'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본래 미션이라는 단어는 그 용법상 '사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 라틴어 어원에서부터 변천을 살펴보면 '보내기, 보내지기'의 뜻에서 시작해서 '사절: 보냄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라는 의미가 함축되고, '사명: 사절에게 부과된 일'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교회의 미션(선교)은 주체(누가), 객체(누구를), 임무(부과된 일)에 따라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해석된다. 즉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교회(객체)를 보내시고,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다. 요약하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고, 선교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하나님 나라 문화 운동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것인지 묻게 된다. 이 질문은 지금의 위기 속에서 고민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하고 싶다.



**지금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있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예비해야 한다.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첫째,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문화 운동'을 제안한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성경, 특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다.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분쟁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의를 세우며, 거룩하고 단순한 삶,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외에도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보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성경 속에 가득하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양식이 되고 기독교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거나 등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다면 소금과 등불은 쓸모가 없게 된다. 교회의 사회적 리더십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나를 포함한 지도자들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돌이켜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에 더욱 힘쓰고 착한 행실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가르치고 힘써 실천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 문화 운동을 제안한다.

### 영역별 선교 강화

둘째,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영역별 선교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선교는

미전도종족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의 선교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선교가 가능해졌다. 해외 선교단체들도 영역별 선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새로운 전략 방향이기도 하다.

영역별 선교전략이란 전 세계의 영역을 정치, 경제, 과학기술, 교육, 미디어, 문화예술, 가정, 종교 등으로 나누고 영역별로 사명과 핵심가치, 주요 이슈들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전략을 말한다.

영역별 선교를 강화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연결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영역별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유익이 있다.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에서 벗어난 사회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별 크리스천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등을 협의한다면 하나님 나라 구현에 매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역별 선교전략을 어떻게 지역 교회에서 실행할 수 있을까? 우선 지역 교회에 있는 남녀선교회를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남녀 구분 없이 영역별로 모이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녀선교회 전국 연합회도 영역별 선교회로 세분해서 활동하면 사회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국내외 세계의 영역별 기독교 단체(기독교법조인회, 기독교실업인회, 기독교사회 등)와 교류협력하면서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회의 모

든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 '일터학교' 개설 제안

셋째,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키는 '일터학교' (가칭) 개설을 제안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기에 '일터에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회사와 국민경제,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일터는 세상의 행복판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로 보냄 받은 선교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일터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서로 달라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위선적 행동 때문에 자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이 여러 부분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온전한 성도로 훈련시켜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통합된 정체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여된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일터사역은 직장선교단체가 중심이었다. 직장선교단체들 스스로 기대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일터사역은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 담임목회자의 관심과 지원이 핵심성공 요인이라고 말한다. 아버지학교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단기간의 표준화된 커리큘럼을 갖추는 것이 확산에 중요하다. 이런 사례들을 토대로 나는 일터학교 개설을 교회에 제안한다. 일터학교는 4주, 토요일, 총 16시간 정도의 표준과정으로 운영하되, 훈련주제는 '신앙(faith), 일(work), 삶(life)'을 조화롭게 다루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터학교 가이드북을 편찬하면 경험이 부족한 중소형 교회도 쉽게 일터학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단일 교회가 혼자서 일터학교를 개설할 만한 교인 숫자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다면 같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지금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교회는 코로나19 이후를 예비해야만 한다. 앞으로 교회가 사회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 변혁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변혁적 리더십을 갖추기를 기도한다.

코로나19, '양육'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것이 비대면이 되면서 일상생활에 불가피하게 많은 변화들이 생겼다.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고, 방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개인의 일상 동선이 추적되고 발표되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만 사회와 국가라는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음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교회도 이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모든 예배가 비대면 혹은 일부 대면으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교회는 앞으로 신앙의 양육과 교제의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달라진 교회의 비대면 문화 중 하나가 온라인 양육일 것이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이하 가스펠 프로젝트)'은 13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공동체 성도들 각자가 유튜브를 통해 신원석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고, 매주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어진 주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다.

신원석 목사님은 예수님 시대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셨다. 강의를 들으면서 예수님 시대의 지역, 정치, 역사적인 상황을 그려볼 수 있었다.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문광호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는 강의를 들으며 "신앙의 위로와 성장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느낌을 받았다.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강의에서는 나 중심이었던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제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겠습니까. 제 묵은 땅을 기경하겠습니까(호 10:12)"라고 다짐했던 나 중심의 변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농부이신 아버지 하

나님, 제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를 간구하게 되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렘브란트의 작품인 '탕자의 귀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한 예술가와 그의 작품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라보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복음축제'

'예수님의 기적' 강의에서는 신원석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강의 중간중간 신앙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체험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삶의 활동과 만남을 위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19 사태도 막지 못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딤후 2:9).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누리교회가 새로 진행한 양육 방법이 많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로와 성장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는 복음축제(Gospel Project)가 되었다.

밤을 새우며 강의를 만들고, 좋은 강의를 해주신 신원석 목사님과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신 많은 공동체 지체들께 감사를 전한다.

/ 문광호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학청년부  
바이블아카데미 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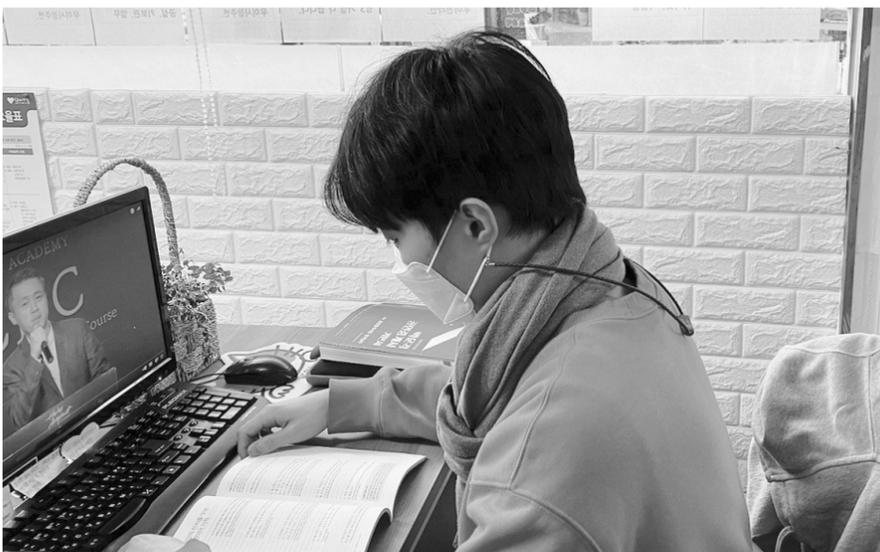
내가 바로 그 예시다

CDC(Christian Discipleship Course, 이하 CDC)는 나에게 여러 깨달음을 주었다. 그중에서 가장 크게 다가온 키워드는 '순종'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부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았다. 그들과 똑같이 살기 시작했다. 단 음식만 먹으면 충치가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것을 먹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치아를 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의 달콤함이 내 안의 예배를 천천히 무너뜨렸다. 내 생각과 신앙마저 잠식해버렸다.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라 늦잠 자고 쉬는 주말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하루는 새벽까지 놀고 집에 들어가던 길에 새벽기도를 드리러 교회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교회를 다니면 뭐가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으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그 걱정이 점점 커져서 나를 채찍질했다. 나는 남들 못지않게 공부하고 밤낮으로 일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결과가 다른 이들보다 못했다. '나는 저들보다 더 노력했고, 저들보다 더



구지민 형제(CH PLUS청년부)가 바이블아카데미 CDC 강의를 듣고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의 결과는 이렇게 나쁠까?'라는 의문과 좌절을 느끼던 무렵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너진 것 같은 좌절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것 같다. 당시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선데이 크리스천이었다. 형식적으로

만 교회 갔다가 약속이 생기면 중간에 나오기도 하는 하나의 일정 정도로 생각했다. 그런데 직장(일)이라는 나의 최후 보루가 부서지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게 정말인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을 잠그시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취업이든 뭐든 될 리가 없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졌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어찌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바이블아카데미 CDC 과정을 들었다.

CDC 강의를 마무리되어갈 무렵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다. 그 과정은 순종이었다. 하나님은 가끔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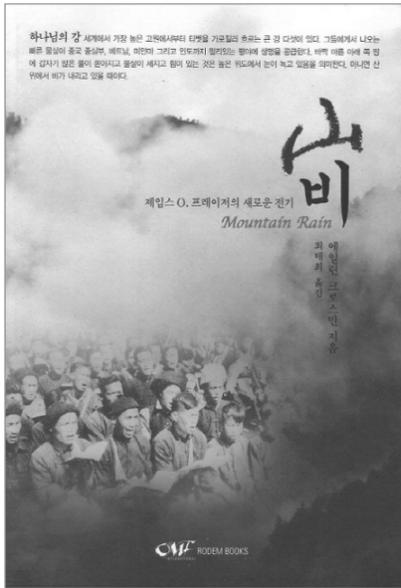
세상에 수많은 탕자들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좌절하고, 사람이나 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아직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 내가 바로 그 예시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우연이 없다. 필연만 있다. 모두 하나님이다 하신다.

/ 구지민 형제(CH PLUS청년부)



책 읽어주는 목사

# “기도가 우선입니다”



〈산비〉  
에일린 크로스만 저 | 로덤북스  
| 12,000원

7~8년 전으로 기억한다. EBS에서 매주 월~금요일 밤 9시에 방영하는 ‘세계테마기행’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시간이 되면 챙겨보

았다. 어느 날 습관적으로 TV를 켜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중국 내륙을 소개하고 있었다. 여간해서는 갈 수 없는 곳이기엔 흥미롭게 보고 있었다.

깊은 중국 내륙의 높은 산고을에 터를 두고 오랜 시간 살아온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들의 모습은 전통적인 중국 한족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몽골인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외지인의 방문을 환영하며 그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응당 있어야 하는 술이 보이지 않았다.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찰나 아주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동네 사람들이 커다란 술에 발효시킨 양젖을 꺼내 돌려 마시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에게 PD가 “술은 어디 가고 양젖을 드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질문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답이 나왔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즐기는 저녁잔치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술이 아닌 양젖을 마시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리수족이었다. 그러면서 떠오른 책이 있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산비〉다. 세계테마기행에서 제임스 프레이저의 흔적을 만나게 되다니!

〈산비〉의 주인공 제임스 O. 프레이저는 1886년 런던에서 태어났다. 22세에 공학도로써 빛나는 경력과 안락한 가정을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된 인물이다. 그는 1908년 퉁총(퉁웨이)에 있을 때 처음으로 리수족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산비〉는 외지인이었던 프레이저가 리수족과 하나 되기까지 겪었던 숭한 어려움과 함께 서서히 열리는 복음의 열매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다. 프레이저는 생애를 바쳐 리수족을 위해 네 가지 중요한 열매를 거둔다. 첫째, 리수족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했다. 둘째, 리수족공동체에 예수의 문화를 새겼으며, 셋째, 자기들의 문자를 만들어 더욱 문명화되도록 도왔다. 넷째, 성경을 리수족의 언어로 번역하였다. ‘산비’는 ‘산에서 내리는 비’라는 문장을 축약한 단어다. 조용히 하지만 압도적으로 산을 적시는 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山) 사람 리수족의 삶과 문화에 젖어 드는 감동적인 기록이 책 〈산비〉에 담겨 있다.

이 책에는 선교의 승리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프레이저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수

많은 어려움이 모두 담겨있다. 사역 초기부터 리수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의 노력이 수포가 되어버리고, 생각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현실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프레이저는 선교현장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프레이저의 그기도가 나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다.

“저는 기도가 우선이고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현재 저는 기도의 자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어야 하고 네 번째에 가르치는 것이 와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숭한 선교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잊지 않았던 프레이저의 믿음과 신앙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열매를 바라게 되는 사역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프레이저의 모습이 큰 감동을 일으킨다.



이길탁 목사  
(강남M공동체)

## 동방기독교 역사

###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논쟁

동방기독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논쟁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안디옥 학파가 동쪽으로 뻗어 나가며 생겨났다. 어떤 차이로 안디옥 학파는 이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을까? 안디옥 학파나 알렉산드리아 학파 모두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안디옥 학파는 인성을,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더욱 강조하는 차이가 있었다.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탁월한 설교가였지만 교만하기도 했다.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폐하, 이단자들이 없는 세상을 제게 주시면 저는 폐하께 그 대가로 천국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설교를 하기도 했다. 천국의 주인 행세를 하며 반대파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고 결국 자신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마리아의 젖을 먹고 컸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젖먹이 어린아이를 하나님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젖먹이 아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학파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다. 안디

옥 학파는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을 고수한 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했다.

끝나지 않은 이단 시비에 로마 황제는 431년 6월 7일 에베소의 성모마리아교회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교들을 소집했다.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제날짜에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154명의 주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판서가 낭독되었고 만장일치로 네스토리우스 주교의 파문이 결정되었다. 6월 29일에서야 에베소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해 알렉산드리아 학파 키릴루스 주교 세력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을 결정했다. 이러한 파행은 7월 9일 키릴루스 주교의 승리로 막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건의 전말을 보고 받은 8월 로마 황제의 특사는 두 사람의 직위를 해지시켰다. 네스토리우스 주교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키릴루스 주교는 뇌물을 이용해 네스토리우스 주교의 세력을 끌어안았다. 433년 황제는 양성양체론(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이단으로 간주하여 그들을 기독교도라고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후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의 본성을 지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확정했다. 이 공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져 갈 길을 가게 된 것이다. 두 학파의 논쟁은 325년 니케아, 381년 콘스탄티노플, 431년 에베소, 451년 칼케돈 공의회를 거치면서 타결점을 봤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단으로 낙인찍히고 파문을 당했다. 이 논쟁은 하나님을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시도에서 온 것이었다. 두 학파 모두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던 아니었을까. 교계에서는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의 순수성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굳이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논쟁에서 누가 이기고 졌느냐는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600년이 지난 이들의 논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개신교에는 수많은 교단이 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본질보다 다른 문제로 갈라져 다투거나 서로를 외면하고 있다.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처럼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

##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 ‘뜻과 계획’

피기도 전에 시들지 않도록  
신음 가운데 흠어지지 않게  
마음과 심령 다해 애원하지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운가  
실망이 안겨질까 무서운가  
어찌 아무 뜻도 없이  
시간이 바퀴를 돌려 가리

안타까워하나  
시들어 가는 빛깔을  
한숨을 짓나  
떨어지는 꽃잎에  
어찌 아무 계획도 없이  
시간의 회오리로  
아름다움을 찾아가라



다윗공동체(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청년들이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마을 독거노인 9가정에 연탄 2천 장을 전달했다.

###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하여”

#### 온누리청소년센터 환경개선 감사예배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지난 2월 17일(수) 환경개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조현수 목사(경기A공동체), 양재수 장로, 박현규 장로, 김종호 장로, 정태경 장로, 온누리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 등 리더십들과 시설 관계자, 입소청소년 등이 참석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9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과 기능에 맞는 공간

활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누리청소년센터 인근의 공간을 임대해서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환경개선 사업도 했다. 환경개선 감사예배에서 송영범 대표이사는 “예수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온누리교회 국방부 감사장 받아

#### 군 복음화에 앞장선 공로



온누리교회가 지난 18일 군 복음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 받아 국방부 감사장을 받았다. 국방부 감사장을 받는 자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배동훈 대령(국방부 군종정책과장), 김광식 중령(국방부 군종정책과), 군 선교팀 리더십 4명이 참석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그동안 군 부대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

하게’ 보급 및 상영, <생명의 삶> 지원, 도서 지원, 군인 교회 유튜브 영상 촬영 장비 지원, CGTV 드림은플러스 장비 지원, 마스크 지원 등 55만 군 장병의 복음화를 위해 부단히 애썼다. 배동훈 대령(국방부 군종정책과장)은 “온누리교회의 지속적인 섬김과 지원 덕분에 군 복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온누리교회는 군 복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 ‘미래사회 변화 대처’

#### 목회사관학교, 김경훈 대표 강연

2021년 목회사관학교 다섯 번째 강의가 지난 2월 16일(화) 열렸다. ‘미래사회 변화 대처’를 주제로 김경훈 대표(구글코리아)가 강의했다. 이날 김경훈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는 개인, 집단, 전문가의 분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초개인화 사회 및 사역의 초파편화 현상에서 분별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월 23일 이어지는 2021년 목회사관학교 마지막 강의에서는 박세업 선교사(모로코 선교사, KOICA)가 ‘선교적 영성’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 사회선교부 리더십 세미나 개최

#### 사회선교의 성서적 근거 고찰

사회선교부가 지난 2월 6일 ‘사회선교의 성서적 근거’를 주제로 리더십 세미나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사회선교부 리더십 76명이 참가했다. 사회선교부 리더십 세미나는 정태경 장로 대표기도, 김희권 교수 강의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희권 교수(숭실대)는 ‘

사회선교의 가능성과 그 한계’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사회선교는 성경적, 교회사적으로 근거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등한시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교회의 선교는 개인의 회심을 넘어 사회선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선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보약보다 좋다”

### 다윗공동체, 독거노인 9가정에 연탄 2천 장 전달

다윗공동체(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지난 2월 6일(토) 구리시 교문동 딸기원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9가정에 연탄 2천 장을 전달했다. 마스크 착용 및 최소 인원 참여 등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연탄을 전달받은 한 할머니는 “금은보화보다 귀하고, 보약보다 좋은 연탄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윤석무 형제(다윗공동체)는 “어르신들께 연탄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허원희 목사(다윗공동체 담당)는 “이웃사랑을 직접 몸으로 실천할 때 우리 영혼에 더 큰 교훈이 된다”면서 “다윗공동체 청년들이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일일특강

### C. S. 루이스의 ‘헤아려 본 기쁨’

기독교 변증가 C. S. 루이스가 말하는 기쁨의 신학을 탐구하는 세미나 ‘헤아려 본 기쁨’이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강한다. 기쁨이라는 본질적 경험을 이해하고, 삶과 생각에 변화를 체험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가 강의한다. 회비는 3만 원이다. 3월 8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 준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박성일 목사 저서 <헤아려 본 기쁨>(두란노)을 증정한다. 문의: 02-2078-3269

###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이벤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을 응원하는 할인이벤트를 실시한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한 성도들이 헌혈증이나 인증사진을 제시하면 구입한 제품의 가격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할인이벤트는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796-2310

### 선교역사자료집 5,6권 발간

#### 2004년~2006년 <온누리신문> 선교기사 모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에서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5권과 6권을 발간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온누리신문에 보도된 선교 관련 기사들이 담겨있다.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볼 수 있다.

채현석 선교사(2000선교본부)는 “더욱 생생한 온누리 선교역사자료집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가 기록된 다양한 자료(사진, 글 등)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 온라인 전도폭발훈련 훈련생 모집

#### 서빙고 주간반/저녁반, 양재 주일반/수요일반

전도폭발훈련 서빙고 31기 주간반과 저녁반, 양재 29기 주일반과 수요일반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빙고 주간반 3월 15일~6월 14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저녁반 3월 15일~6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 양재 주일반 3월 14일~6월 13일 매주일요일 오후 2시, 양재 수요일반 3월 17일~6월 16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현장실습은 별도로 실시한다. 수강료는 무료(교재비 별도). 문의: 010-3801-1215(서빙고 주간반) 010-8625-9000(서빙고 저녁반) 010-8711-2831(양재 주일반) 010-6288-4825(양재 수요일반) / 홍하영 기자

전도폭발훈련 수료 간증



/ 유정순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전도는 믿는 자의 사명

오래전 한 권사님의 권면으로 전도를 한 적이 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 주변 행인들에게 전도 물티슈를 나눠주었다. 행인들의 반응이 다양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매몰차게 거절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행인들의 반응에 상처받고 주눅 들고 회의감마저 들었다. 그날 이후 전도는 내 체질이 아니라는 생각을 핑계 삼아 조용히 빠져나왔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전도폭발훈련 모집 광고를 보게 됐다. 이전의 일들이 내 마음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신청했다. 그러나 전도폭발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이 복잡해졌다. 전도는 역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망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복음의 핵심을 확실하게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경험을 했는데도 현장 전도를 갈 때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었다. 사람들의 눈을 못 맞추고 입술 한 번 떼지 못한 채 조장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그래서 전도폭발훈련 2단계 훈련을 계속해야 하

는지 결심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더니 부담감과 긴장감이 점점 사라졌다. 그리고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전도폭발훈련 2단계를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 우리 세 자매가 큰오빠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왔다. 지난봄 큰오빠 딸이 난소암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재발방지를 위해 2년 동안 치료하고 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조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언니에게 도움을 구했다. 전도폭발 식구들과 순식구들, 언니의 순식구들까지 중보기도를 해주었다. 조카와 여러 번 만남 끝에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조카에게 다음날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다. 문자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전도폭발훈련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다. 조카를 통해 큰오빠 가정에 복음이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전도폭발훈련을 받기 전에 나는 전도에 대해 무한한 자유함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전도는 은사가 아닌 예수님의 명령이자 믿는 자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온라인 온비아 과정 수료 간증



/ 손호진 집사(양재 온누리교회)

나에게 남은 과제

우리 부부의 삶에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공동체 장로님의 소개로 BEE KOREA의 온비아 과정을 알게 되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씀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했다. 평신도로서 BEE KOREA 훈련과정을 마치고, 헌신적으로 수강생들을 섬기는 인도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각자 직장 가정에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의 원동력이 궁금했다.

또한 함께 BEE KOREA 온비아 과정 세미나를 듣는 형제자매님들의 깊은 믿음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고난 앞에 서서야 부르짖는 내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 믿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다.

온비아 기초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해 6개월 늦게 온

라인으로 개강했다. '로마서' 과정을 마치고 오랫동안 성경공부를 하지 않고 있었던 데다 직장에서도 새로운 보직과 고3 수험생인 딸을 보살피는 일 등으로 솔직히 다시 BEE KOREA 온비아 과정을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더구나 Zoom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는 것이 교사인 나에게도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을 마치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더욱 어려울 것 같았다. 더구나 같은 반 형제자매님들과 끝까지 수업을 함께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마지막 과정을 신청했다.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은 예상대로 직장 가정에서의 바쁜 일정으로 연습과 과제 등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가 컸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려는 매일의 훈련을 나의 삶 속에 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에서 배운 것을 일관성 있게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



/ 김예중 자매(여호수아청년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평소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선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거나 직접적인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화요성령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의 기도제목 중 하나를 보던 중에 하나가 눈에 박혔다. "코로나로 인해 친구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기도제목이 마음 깊이 자리 잡으면서 더욱 깊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해 기도했다. 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와이미션 강의를 신청했다.

와이미션 강의 초반에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온 선교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다. 그중에서 구약 시대의 사건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셨다는 부분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마음을 더 쏟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와이미션 중반에는 세계와 한국 선교의 역사와 문화를 배웠다. 이 작은 나라를 위해 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와이미션 마지막에는 청년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청년선교의 중요성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선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선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반성했다.

와이미션 강의를 통해 정말 많이 배웠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장 나아갈 수 없지만, 주저앉아있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임을 깨닫고 직장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주저하지 말고 와이미션 과정에 참여해보기를 권한다. 분명 와이미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거라고 확신한다. 내 주변이 선교지로 보이는 새로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고 싶다. 청년들 모두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사무엘, 예녹 선교사(불가리아)

이 터널의 끝이 보일 때까지

주 안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엇그제 처음 눈이 내리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에서는 매일 수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유럽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이 나라 정부가 부랴부랴 강한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트와 약국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를 닫는 준긴급사태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도 코로나19로 아픈 분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느 해와 너무 달랐고 코로나19로 많은 사역과 모임이 취소되고 예배가 제한되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규제를 피해 남부 한적한 강가에서 드려진 세례식이 참 감사했습니다. 이곳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산에 모여 선교지와 한국 교회를 위해 예배하며 기도했던 시간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손발이 묶여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절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그분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기에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 붙잡고 이 터널의 끝이 보일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려 합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도시가 지방이고 이미 지역 병원의 병상이 없어서 코로나19 확진이 되도 집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마음 졸이며 주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동제한으로 힘든 사춘기의 아이들을 붙들어주시고 일상과 사역 속에 주의 일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회 전반의 의료와 방역 시스템들이 정비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고 미혹하고 속이는 영들이 떠나가도록, 코로나19로 아픈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기도해주시고.

신앙에세이

“모두 힘내시고 강건하십시오!”



송석근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올해도 어김없이 목회사관학교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 예년 같으면 3박4일 동안 함께 모여서 숙식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2시간씩 6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만나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440여 명의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온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님들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해주신다. 미국 새들백교회 케빈 목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 목회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 오래전부터 바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R. T. 켈달 목사의 강의도 참으로 유익했다. 켈달 목사는 온누리교회에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친숙한 분이다. 연세가 많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감동이었다. 이번 목회사관학교에서 켈달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해주셨다.

켈달 목사는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다. 3년 전 평창에서 열린 목회사관학교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탔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발걸음을 다시 서울로 돌려야 했다. 3일 동안 정신없이 아버지 장례를 치렀다. 켈달 목사님 강의를 꼭 듣고 싶었는데 무척 아쉬웠다. 그런데 다음해 목회사관학교

에 켈달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다. 1년 전의 아쉬움과 갑갑함을 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이번 온라인 목회사관학교의 가장 큰 난관은 소그룹 나눔이었다. 440여 명이 온라인으로 소그룹 나눔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었다. 조장으로서 더 큰 부담을 느꼈다. 우리 조는 8명이었는데 미국, 일본, 홍콩, 두바이 등 해외 교역자들이 절반을 차지했다. 시차도 다르고, 환경도 많이 달라서 과연 같은 시간에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까 걱정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다. 모니터 속 나눔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 두바이는 하루 확진자가 3천 명씩 생기는 상황이라 우려되지만 곳곳에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했다. 홍콩은 자가격리 기간이 무려 3주나 되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목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합류하지 못해 혼자 생활하신다고 했다. 미국 산타모니카에서는 많은 유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해 버려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 열방 곳곳의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 그 와중에도 곳곳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전 지구적인 재앙 속에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모든 온누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인사드리고 싶다. 모두 힘내시고, 강건하십시오. 샬롬!

권사칼럼

“복음을 위하여 굳세게 살리라”



김순화 권사  
(경기A공동체)

사람의 위로는 일회성으로 끝나기 쉽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그 끝이 없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는 은혜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셨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법사에 감사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정금같이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40년 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 삶을 나눌 수 없을 만큼 남편의 거친 말과 폭력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로 견디어 낸 지난 시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길이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는 변화되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매일 위로하시며 축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내게 큰 고난을 주었던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가지 않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응답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쫓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하고 있다.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전도지를 품고 다닌다. 지하철을 타거나 시장을 갈

때도 자신 있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사 속에서 지내고 있다. 일분일초도 내 결을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고 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왕하 19:31).

하나님은 20년 전 온누리교회로 나를 인도하셨다. 하용조 목사의 깊이 있는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나의 강팍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내 삶이 변화되었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일 샘솟는 은혜를 받고 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굳세게 살리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박혔다. 그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딸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딸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문화어린이합창단과 장학재단, 선교사 지원센터를 세우는 꿈을 주셨다. 딸은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회사를 창립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딸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는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복음을 멈출 수가 없다. 앞으로 남은 생애를 더욱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고 싶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것을 다짐하며,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남은 삶을 다 드릴 것을 다짐한다.

선교칼럼



김성희 선교사  
(김포M센터)

나는 중국의 선교사 탄압으로 비자발적으로 출국했다. 나는 2000년대 중국 A지역에서 MK들을 위한 유치원사역을 하였다.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점차 공안의 압박으로 중국에 머물기 어려워졌다. 공간들은 유치원과 나를 압박했다. 지인을 통해 공간에서 “김성희만 없으면 유치원을 건드리지 않겠다”더라는 말을 듣게 됐다. 50세 나이에 A지역에서 나와 OSOM(온누리 장기선교사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중국 B지역에서 어린이사역을 이어갔다. 중국과 미얀마 국경에 유치원을 세우고 현지에 교회를 세울 계획이었는데 중국의 선교사 탄압으로 2019년 한국으로 돌아왔

다. 이미 A지역에서 쫓기듯 나올 때 한 번 겪었기 때문일까.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1년만 더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에 와서 다문화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 OGA(Onnuri Globle Academy)에 투입되었다. 중국 A지역 유치원은 MK들을 위한 유치원이었는데 내가 A지역을 나올 때는 다문화자녀가 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섬길 게 OGA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아니었을까. 안산, 김포, 평택, 남양주 OGA 중에서 나는 김포M센터에서 OGA를 담당하게 됐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유독 김포M센터 OGA에 유치부 어린이들이 많다. 아이들과 함께하면 힘이 나는 체질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딱 맞춰 주셨다.

김포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거의 방글라데시 줌머족이었다. 방글라데시 줌머족은 독실한 불교도라 자녀들만 토요일에 김포M센터에 보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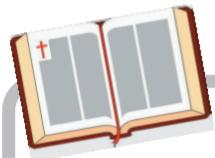
시도를 했다. 달란트시장을 열어 부모들을 초청해 스킷드라마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서빙고 차세대 교사들이 찾아와 소그룹을 진행해주기도 했다. 재미있게 소그룹을 마치고 간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김포M센터 OGA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자녀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줌머족 부모들 반 이상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퍼졌다. 하나님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김포M센터 OGA를 새롭게 하셨다. 김포M센터에서 미얀마예배를 담당하는 최영석 선교사님과 미얀마 식당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엘라야자 가정과 테위루트 가정을 만났다.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 점점 많은 아이들과 교제하며 가스펠 프로젝트와 나의 사랑하는 책 어드벤처를 가정방문으로 진행했다. 2020년 어드벤처는 한국에 성경이 들어온 역사를 다루는데 미얀마 난민 가정들이 흥미롭게 참여했다. 한국 성경 역사 지도를 벽에 붙여

놓고 미얀마 난민 부모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곳들을 놀러가 보자”고 자녀들과 약속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주춤해진 11월 다시 OGA 토요일 특별활동과 주일 예배를 드렸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한국 등 30여 명의 아이들이 참석했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줌(Zoom)으로 예배를 드린다. 처음 줌(Zoom)으로 진행될 때 우두커니 쳐다만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신나게 울동을 하고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돌봄교실을 하면서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한글공부를 한다.

나는 김포M센터 OGA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 삶이 예배인 아이들로 세우고 싶다. 중국 A지역에서 유치원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다. 내가 다시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가르치겠다고, 지금 그 약속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죽음 이후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 그대로 주와 함께 존재하고, 몸의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고, 그분으로 옷 입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씨앗'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생명의 위해 삼켜져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4b).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예가 씨앗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썩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자체가 생명의 위해 삼켜지는 죽음입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썩은 것을 보고 통곡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통곡할 일입니다. 씨앗이 소멸되는 것은 생명의 위해 죽음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의 수치와 죄를 다 씻어 내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씨앗 안에 생명을 담아두셨듯이, 썩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죽음은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사건입니다. 우리 몸이 무너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과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변화를 넣어주셨습니다.

### 바울의 세 가지 담대함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5절).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 보증이 있기에 바울에게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죽음 앞에서야 판명됩니다. 바울에게는 세 가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첫째, 몸 안에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6-7절).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의 물리적인 임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환상이나 어떠한 징조를 통하여 주께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임재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몸 안에 있을 때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영혼의 눈이기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고자 하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8절).

‘몸을 떠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몸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을 떠나는 죽음이 주와 함께 거하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덤에 있는 성도들의 몸은 소멸되지만 그 영혼은 주와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거하는데 몸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없는 상태에서도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 안에서 믿음으로 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서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9-10절).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목적은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보응의 심판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는지, 칭찬받느냐 책망받느냐의 심판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없어야 행복한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시험과 고난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텐트를 치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더라도 그것은 텐트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텐트일 뿐입니다. 언젠가 우리 몸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덧입기를 사모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여행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몸 안에 있을 때 주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며,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동반자 양육자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일본어예배		일산		중국어예배		양재		분당A		분당B		서초A		서초B		서초C	
천성권 유영준	김용섭 김석우 김주리 장수정 조진영 최순자 황성혜 최성희	이한상 나문채	박건희 구본영	박건희 구본영	JING LIYUAN 김성철 WANG HUIXI 임정자	김정현 송은아 박지현 김옥규	고혜진 유미경 김형주 김문갑 손금례 이현인 유지상 윤진혁 이영근 이강신 한혜진 권영선	김호석 김대환 김철중 조승용	나경인 김정숙 조영실 고은영	김지나 최차영 장지선 장정복 최 진 신동은 황규호 윤석일	김정진 이경남 정수경 김유정 권지현 이상희 장현석 이승근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김민선 최민화 김진홍 박순호 함미영 정순일 강경숙 송애영 김민선 우혜경 김선아 박상혜 김홍수 박현규 박세령 강영란 안소영 임화현 한철규 김시용 홍은희 송애영

###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2월 21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양재 2부 예배  
 서빙고 수료대상자: 서빙고분당 우측 성가대석 앞  
 양재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2020년 11월 1일~1월 31일 사이에 완료보고한 성도입니다.

서빙고		양재		서초A		서초B		서초C	
이호선 장용준 조병훈 최혜진 하태윤 홍원일 황경준 황윤정	박해진 손금미 양옥희 원영아 유명희 이보연 이명석 이은화 이은숙 이태주 임해창 장영자 정중수 진병수	김철희 목사반 서정원 이상은 정길용 한선미	김철주 장로반 강현주 김덕용 김신석 김윤숙 김은정 김태은 박은실 박현정	이정현 차현주 이한나 김민정 임소연 박나영 임혜정 조문진 전현정 김현아 최하영 장영은	현승현 한기인 어린이 김민경 정에란 신아람 박은우	정은배 정재경 조경숙 조복희 최성건	조바울 목사반 강민경 김세영 김은경 김인중 김희선 양주미 정인애 정주희 조영미 한홍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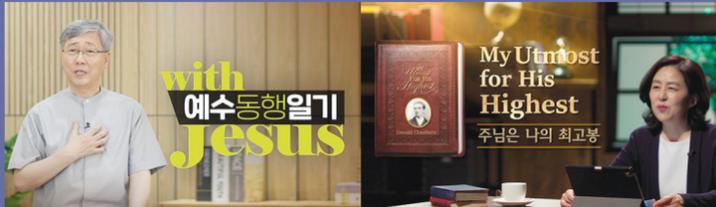
콘텐츠를 보다, 복음에 빠지다

# 퐁당



이단 걱정 없이 건강한 기독 콘텐츠를 보고 싶을 때  
광고 없이 무료로 영화와 찬양에 '퐁당' 빠지고 싶을 때

**기독 OTT 플랫폼 '퐁당'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예수동행일기

주님은 나의 최고봉

### 퐁당 오리지널 콘텐츠

퐁당에서만 선보이는 자체 제작 콘텐츠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 콘텐츠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원하는  
모든 부모를 위해  
엄선된 키즈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히즈쇼

바이블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일사각오

### 감동적인 기독 영화

완성도는 물론  
영적으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기독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fondant**

'퐁당(Fondant)'은 '흘러넘치다, 빠져들다'라는 뜻의 프랑스로  
온 세상으로 복음을 흘러보내는 기독 OTT 플랫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퐁당'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퐁당(Fondant)을 검색하세요



문의 02-792-0691